

# 과거 불세존계 동전 한 닢 보시...91집 동안 복 누려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5)

물고기가 삼켰어도 죽지않은 아기

사위국에 장자가 살고 있었다.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기로는 부족할 게 없었지만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그래서 장자 부부는 늘 자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정성이 쌓였는지 어느 날, 장자의 부인은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들을 낳았다.

장자 부부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강가에서 잔치를 열었다. 장자 부부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기뻐했다. 장자 부부는 번갈아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쳤다.

그런데 장자 부인이 아이를 안고 춤을 추다가 실수로 그만 손이 풀려 아이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를 건지려 했지만 아이는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장자 부부는 시름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복덕이 있었는지 죽지 않고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다. 그러다 결국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는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다.

강 하류 아랫마을에도 장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역시 아이가 없었다. 온갖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 장자집에서는 항상 하인들이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그 집 하인이 마침 어린아이를 삼킨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물고기의 배를 갈라보니 물고기의 뱃속에 어린 아이가 들어있었다. 하인은 주인에게 아이를 주었고 장자 부부는 깊은 인연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기르기로 했다.

“그 동안 정성으로 기원했더니 그 정성에 하늘이 응답하여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장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장자 부부는 그 아이를 친 자식처럼 잘 길렀다.

윗마을 장자 부부는 아랫마을 장자가 고기의 뱃속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장자 부부는 자신의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래 마을 장자가 말했다.

“나의 집에서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제사로 아들을 얻기를 빌었기에, 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이를 주신 것이요.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두 장자는 아이 하나를 놓고 다투게 되었다. 서로 포기하지 않자 두 장자는 왕에게 나아가 판결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왕 앞에서도 두 장자는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윗마을 장자가 말했다.

“이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제가 실수로 강가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랫마을 장자가 말했다.

“나는 강에서 잡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나의 아들이요,

절대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난감했다. 하지만 왕은 두 집안 모두를 위해 일을 공평하게 하기로 했다.

“두 장자들은 들으시오. 저 마다 자기 아들이라 하니, 지금 만약에 한 쪽 집에 이 아이를 준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두 집에서 함께 이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각 집에서 아내를 맞아들여 가업을 마련해 주시오. 그래서 두 곳에서 따로 살게 하되, 이쪽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 집에 속하게 하고, 또 저쪽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저 집에 속하게 하면 될 것이요.”

“잘 왔다.”

그러자 아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면서 바로 사문이 되었으니, 이름은 중성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설법하시자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아라한이 되었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의 오랜 옛날에 불세존께서 계셨는데, 명호는 비바시불이었다.

대중들을 모아 그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다. 어느 날, 장자 하나가 그 모일에 와서 큰 법문과 보시와 지계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과 공경의 마음을 내게 되었다.”



삽화 · 강병호

두 장자는 왕의 명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 성장하였기에 이제 두 집이 함께 장자를 들어 모자람이 없도록 필요한 물건들을 다 내려주려 하였는데, 아이는 두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가지 괴로움을 당하여 왔습니다. 강물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고기한테 먹혀서 다 죽게 된 것을 다시 구제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이상 괴로움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출가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원컨대 부모님들께서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출가하고 싶습니다.”

양쪽 부모는 마음 깊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바로 허락했다. 이들은 부처님께로 가서 아들을 제자로 받아 줄 것을 청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는 3귀의와 불살생계를 받고, 동전 한 닢을 그 부처님께 보시했다. 이런 인연으로 그는 세상에 태어날 적마다 복을 받아 재산과 보물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 장자는 바로 지금의 중성 비구이다. 중성 비구는 그 부처님께 한 닢의 돈을 보시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91집 동안에 한결같이 돈과 재물이 넉넉했다.

이 세상에 와서는 두 집 부모들이 필요한 것을 모두 대 주었으며, 불살생계를 받은지라 물에 빠졌을 때는 고기가 그를 삼켰어도 죽지 않을 수 있었고, 3귀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다.”

(《현우경》 제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㉞



## ‘극락·지옥’ 한 생각이 만든다

이 땅에 다시 전쟁 없기를...

지난 6월 6일 호국영령 추모 범회인 제23회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가 열린 부산 흥법사에 다녀왔다.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천도재를 올렸다.

그 날 행사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 열두 분을 초청하여 세계평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공로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 물론 그들을 위한 행사가 그동안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처님 도량에서 진행된 행사여서 좋았다. 지금은 팔순을 넘긴 나이임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당시의 기백을 느꼈다.

그들은 부인과 동행한 사람도 있고 아들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여 본인은 오지 못하고 그의 아들과 손주가 대신 와서 새삼 아버지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한 번도 한국에 와 본 일이 없었다는 그분들이 그렇게 초청되어 감사하다며 각자 자기들의 주(州)기를 가져와 흥법사 주지인 심산 스님께 전하며 감사

행사가 끝나고 점심공양을 한 후 사람들은 너무 그늘마다 군데군데 돛 자리를 깔고 가족끼리 휴식을 취하며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참 평온하고 화목한 풍경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극락이고 지옥이라는 생각을 했다. 63년 전 이 땅은 지옥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이 지옥이 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했다.

어리석은 약속

흥법사를 장건한 하도명화 보살님을 처음 만난 건 30여 년 전 부산 불교 신도회 모임에서다. 보살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을 소중히 생각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훌륭한 불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 알아보고 도음이 필요하면 정성껏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인연들을 많이 쌓아보니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졌고 신행활동의 폭도 많이 넓어졌다.

그는 이곳 두구동의 신창농장을 한 평 두 평에서 시작해 2만평이란 커다란 농장으로 일궈냈다. 그때 그가 심은 작은 묘목들은 지금 거목으로 자랐고 그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나무사랑은 각별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신심은 누구도 따를 수 없으리만큼 돈독했다. 전국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밤새워 기도하고, 통도사의 경봉 스님을 비롯하여 범어사의 하도산 스님 등 많은 스님들과 인연을 짓고 스승으로 모셨다. 그렇게 한 번 인연을 맺은 스님들에게는 정성을 다해 모셨고, 스님들의 법문을 따르고 실천했다.

흥법사 불사는 10년 전쯤 인연을 맺은 심산 스님과 인연되어 시작됐다. 결국 그분의 불사나 신행 활동은 지중하게 맺은 인연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 인연으로 인해 오늘날의 거대한 부산 불교 대표적 인 가람이 된 흥법사 가람을 일구었다. 도량의 숲엔 새들이 울려들고, 푸른 잔디에서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논다. 초과일이 되면 동자승을 서로 하겠다고 밀려드는 등 흥법사는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 ‘63년 전’ 지옥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 죽는 순서 아무도 알 수 없어

의 뜻을 표현했을 때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정전 후 처음 우리나라를 찾은 그들의 소감은 어땠을까. 아마도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전쟁의 화마로 인해 폐허가 된 모습이었을 것인데, 전쟁의 상처를 딛고 눈부시게 달라진 우리나라의 모습에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도 자신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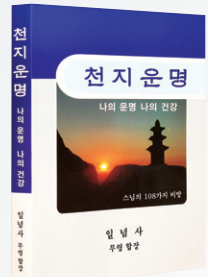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국 5개주에서 왔는데, 이번 행사 때문에 처음 보게 됐다고 했다. 팔순을 넘긴 이분들께는 오늘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 불지종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께서 6월 6일의 의미 있는 양국의 우정과 참전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영혼들을 위해 축원과 법문을 해주셨다. 많은 신도들이 푸른 잔디밭을 매워 그 뜻을 함께 기렸다. 비록 모습은 달라도 감정은 누구나가 같은 것, 마당 한 쪽에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쟁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있었다. 폭격으로 인해 불타고 있는 집들, 연평도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 사진, 괴문 피해자들 등의 불행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무거워지는 슬픔에 숙연해졌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그토록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실상에 할 말을 잃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도명화 보살님과 옛날에 약속을 하나 했다. 노 보살님의 마지막 회향을 꼭 지켜 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내가 어리석은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물론 보살님이 나보다 연세가 많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누가 먼저 갈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했을까 생각하니 어리석은 약속이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 천지운명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과 운명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책!



서산대사께서 입적하기 직전 읊은 시나의 운명 나의 건강. 108가지 민간요법 108가지 약초 담그는 법 108가지 꽃 효소 만드는 법 치유와 깨달음의 미학, 달마도

무량 지음 | 신국대판 | 474페이지 | 장가 5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고, 첫 페이지에는 서산대사께서 입적하시기 직전에 “운명 시”와 “권효가”가 들어있으며 우리들의 운명과 건강이 자세하게 설명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즉, 효소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 약재를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운명”은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특별로 각각 수록되어 있어, 모두 돌려 앉아 서로가 서로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스님의 108가지 비방** 소승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쓰는법” “약초 담그는 법”을 12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연구하여 정성으로 불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헌신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는 각 사찰 스님들께는 30%로 할인을 해드리면서, 꼭 스님분들이 알아야하는 비방법을 써서 전국 사찰 스님께 소정에 값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꼭 스님 분들만 알고 계시야 불자들이 답답하고 힘들때, 모방으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으로서 다음 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사찰명을 잘 알아 두다가 꼭 주문하세요. 각 사찰 스님분들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 보시고 불자들에게 많은 포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운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 환영

##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수익성



##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대칼라산업지붕